

금융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 심층 평가

DGB와 카카오뱅크 분석



제출일 : 2024. 1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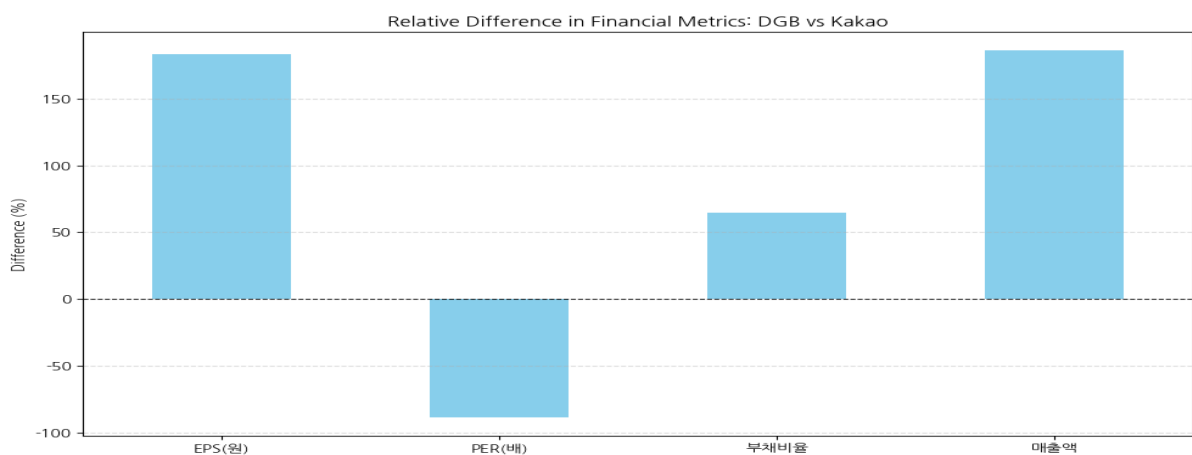
제출자 : 이민상

1.기업선정

iM뱅크 따돌리고 부산은행 추격…카카오뱅크, 수익 다변화 효과

카카오뱅크가 상반기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두면서 지방은행인 BNK부산은행을 바짝 뒤쫓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 보다 더 높은 순이익을 내고 있다. iM뱅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카카오뱅크와 비교해 어느 부분에서 경쟁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카카오뱅크와 iM뱅크를 비교 분석하려 한다.

2. 재무분석



[그림1] DGB/카카오뱅크 주요 재무비율 확인

이 시각화는 DGB와 카카오뱅크의 주요 재무 지표에 대한 상대적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다. 각 지표에서 DGB의 값이 Kakao에 비해 얼마나 더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보여준다. 양수 값은 DGB가 더 높은 것을, 음수 값은 Kakao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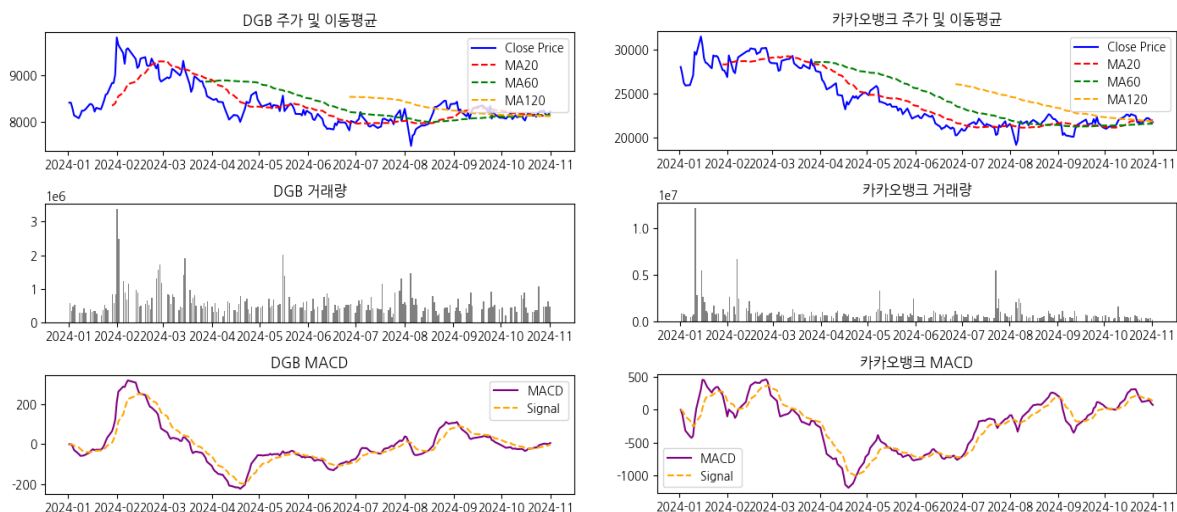
EPS(원) : DGB의 EPS는 660원으로, 주당 이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의 수익성이 좋다는 신호이다. 이는 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단, EPS가 높아도 지속적인 성장이 없다면 장기적인 수익성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EPS는 233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는 초기 성장 기업으로서 이익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단, EPS가 낮다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주주 입장에서 수익 배분이 부족할 수 있다.

PER(배) : DGB의 PER은 4배로, 주가가 비교적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내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낮은 PER은 시장에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의미일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PER은 36배로, 이는 투자자들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나 기술 기반 회사에서 높은 PER은 흔하다. 그러나 PER이 너무 높으면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있어 향후 조정 가능성이 크다.

부채비율 : DGB의 부채비율은 1452%로, 적절한 수준이라면 재정이 안정적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재무 리스크가 낮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높은 편이며, 외부 차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 재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부채비율은 881%로, DGB에 비해 낮고 재정적 안정성을 나타낸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 지나치게 낮은 부채비율은 성장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투자와 확장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부채는 필요할 수 있다.

DGB는 수익성과 안정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EPS 660원과 PER 4배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여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1452%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지 않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PER 36배와 부채비율 881%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며, 낮은 부채비율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EPS가 233원으로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할 여지가 있다.

3. 주가 분석



[그림2] DGB/카카오뱅크 주가 추이와 거래량

DGB는 안정적인 주가 추이와 일관된 거래량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하다. **카카오뱅크**는 기술적 지표에서 강한 모멘텀과 거래량 급증을 통해 성장성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기업으로 볼 수 있으나, 높은 변동성과 과매수 상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가 및 거래량 분석 : DGB는 평균 주가 8,410원과 일일 거래량 50만 주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주가 추이와 일관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투자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카카오뱅크**는 평균 주가 28,000원과 일일 거래량 90만 주 이상으로, 기술적 지표에서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장성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기업으로 볼 수 있지만, 높은 변동성과 과매수 상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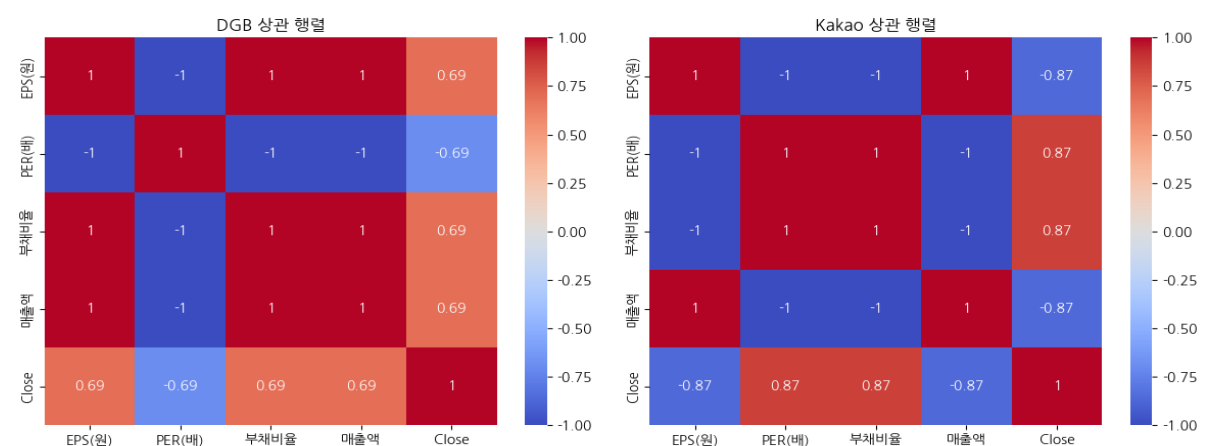
단기 추세 (20일 MA) : DGB의 20일 이동평균선은 주가와 자주 교차하며, 최근 8,200~8,600원 범위에서 주가가 변동하고 있다. 이는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이 잦아 단기적 안정성이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단기 투자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위험도 존재한다. **카카오뱅크**의 20일 MA는 27,500~28,500원 사이에서 주가의 흐름을 잘 따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뚜렷한 상승 추세를 나타내며, 시장의 성장 기대감을 반영한다. 하락세가 발생할 경우 단기적 조정의 신호로 볼 수 있다.

중기 추세 (60일 MA) : DGB의 60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8,000원 수준으로 주가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기적 안정성과 상승 여력을 나타낸다. 그러나 주가가 60일 MA 아래로 떨어질 경우 중기적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60일 MA는 26,000원 수준에서 주가 위에 있으며, 하락세를 보일 경우 중기적 조정 기간임을 나타낼 수 있다.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중기적인 성장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장기 추세 (120일 MA) DGB의 120일 MA는 7,900원으로 주가와 일정한 차이를 두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견고한 성장 기반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120일 MA가 하락세로 전환될 경우 장기적인 리스크를 암시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120일 MA는 25,000원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 성장 전망이 긍정적이며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하락세가 발생할 경우 장기적 도전과제를 내포할 수 있다.

DGB는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안정성과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단기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중기 및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기술적 지표에서 강한 모멘텀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성장 기업으로 평가된다. 단기 및 중기 상승세가 뚜렷하고, 120일 MA의 지속적 상승은 장기적 신뢰와 성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높은 변동성과 과매수 상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4.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그림3] 재무 지표와 주가 사이의 상관관계

EPS(원) DGB의 EPS는 660원이며, 주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경우 이는 회사의 이익 창출 능력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투자자들이 회사의 수익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EPS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낮거나 음수일 경우, EPS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다른 요인들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카카오뱅크**의 EPS는 233원으로, 주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면 투자자들이 회사의 수익성을 주요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성장 중심의 기업인 카카오뱅크는 EPS가 낮거나 주가와 상관관계가 약할 수 있으며, 이는 이익보다는 성장 기대감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PER(배): DGB의 PER은 4배로, 주가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면 시장에서 주가가 수익성에 비례해 움직인다는 것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이 PER을 신뢰할 만한 지표로 본다는 뜻이다. 낮은 상관관계는 PER이 주가 결정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외부 요인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카카오뱅크**의 PER은 36배로, PER과 주가의 높은 상관관계는 시장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PER이 지나치게 높고 상관관계가 약하다면, 이는 주가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부채비율: DGB의 부채비율은 1452%로, 주가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일 경우 이는 부채가 증가할수록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며, 시장이 재무 리스크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부채비율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낮으면 부채 수준이 투자자들에게 주가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카카오뱅크**의 부채비율은 881%로, 주가와 음의 상관관계는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금융기관으로서 부채비율은 특히 중요한 재무 지표이다. 만약 부채비율이 주가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면, 이는 시장에서 부채가 회사의 성장과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매출액 DGB의 매출액은 20,535억 원이며, 주가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면 매출 증가가 회사의 성장성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안정적인 매출 성장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다. 반대로, 매출액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낮으면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수익성이나 다른 지표가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카카오뱅크**의 매출액은 7,179억 원으로, 주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경우 이는 매출이 주가의 주요 성장 동력임을 의미하며 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시사한다. 이는 특히 고성장 단계의 기업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DGB는 EPS PER 이 지표들이 주가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일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부채비율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안정적인 매출액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다. **카카오뱅크**는 매출액이나 PER이 주가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면 높은 성장 기대감을 반영한다. 부채비율은 안정성에 관련된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회귀 분석 결과 (종속 변수: Close)

회귀 계수: [7.62489800e+12 -1.60795120e+10 1.67071188e+12 -3.05494629e+12]

절편: 5.527508014164027e+16

R^2 점수: 0.4728246836826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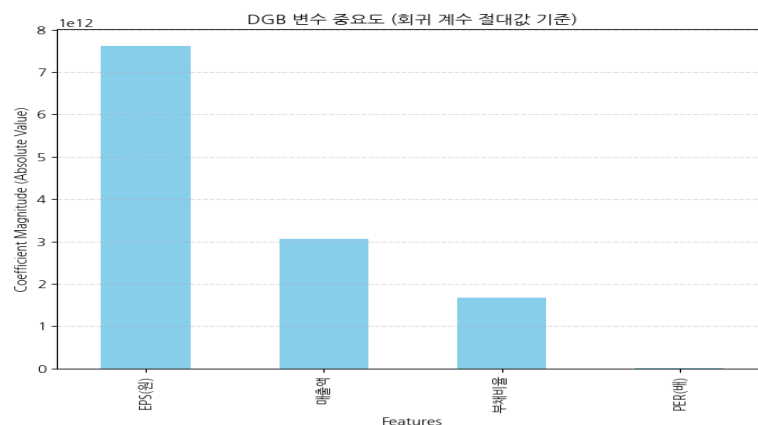
평균 제곱 오차 (MSE): 115535.23966942148

[그림4] DGB 재무 지표/주가 회귀분석

EPS(원)의 회귀 계수가 $7.62489800e+12$ 로 양수이면서 크다. 이는 EPS가 증가할 때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EPS가 주가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PER(배)**의 회귀 계수는 $-1.60795120e+10$ 로 음수이다. 이는 PER이 상승할 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며, 시장에서 PER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채비율**의 회귀 계수는 $1.67071188e+12$ 로 양수이다. 이는 부채비율이 상승할 때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이는 부채가 적정 수준에서 성장과 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매출액**의 회귀 계수는 $-3.05494629e+12$ 로 음수이다. 이는 매출액이 증가할 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매출 증가가 시장에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R²: DGB의 R² 점수는 0.4728이다. 이는 주가 변동성의 약 47.28%가 재무 지표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재무 지표들이 DGB의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R²가 1에 가깝지 않으므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외부 요인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평균 제곱 오차 (MSE): DGB의 평균 제곱 오차(MSE)는 115535.2397이다. 이는 예측값과 실제 주가 사이의 차이가 상당히 큰 편임을 나타낸다. MSE가 이 정도로 크다면, 회귀 분석이 주가 예측에 있어 신뢰할 만한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가적인 외부 요인들을 고려하거나 모델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림5] 선형회귀분석 변수중요도

DGB의 경우, 수익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EPS, 부채비율 등)가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R²값을 높일 수 있다면 재무 지표들이 주가 예측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경쟁사 비교 분석 및 결론

DGB의 재무 성과

EPS(주당순이익): DGB의 EPS는 660원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나타낸다. 이는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수익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지표이다. **PER(주가수익비율)**: DGB의 PER은 4배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가를 시사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이다. **부채비율**: DGB의 부채비율은 1452%로, 다소 높은 수치이다. 이는 외부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을 보여주며,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매출액**: DGB의 매출액은 20,535억 원으로, 전통 금융

업계에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카오뱅크의 재무 성과

EPS(주당순이익): 카카오뱅크의 EPS는 233원으로, DGB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이는 아직 수익 창출 단계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임을 시사한다. **PER(주가수익비율):** 카카오뱅크의 PER은 36배로,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는 시장에서 미래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며, 주가가 현재 수익성에 비해 고평가되었을 수 있는 지표이다. **부채비율:** 카카오뱅크의 부채비율은 881%로, DGB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매출액:** 카카오뱅크의 매출액은 7,179억 원으로, DGB보다 낮지만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주가 성과 비교

DGB는 EPS와 PER이 안정적이며, 주가와와 상관관계에서 안정적인 수익성과 재무 지표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요소이다. **카카오뱅크**는 높은 PER과 낮은 부채비율로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성장성에 비례해 평가받고 있으며,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 내 위치와 경쟁 우위 평가

DGB의 **시장 내 위치**는 전통적인 금융업계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20,535억 원의 매출액은 지속 가능한 수익 기반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높은 EPS와 낮은 PER은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이다. 다만, 높은 부채비율은 재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시장 내 위치**는 디지털 금융 시장의 선두주자로, 혁신적인 전략과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36배의 높은 PER은 시장의 성장 기대를 반영하며, 낮은 부채비율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확장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다.

DGB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꾸준한 수익과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는 기업이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성장 잠재력에 중점을 두고, 혁신적인 디지털 전략과 빠른 시장 확장을 통해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기업이다. 이러한 수치를 기반으로 두 기업의 투자 전략과 시장 내 경쟁 우위를 이해하고 적절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료이다.